

2012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메시지 56

요한계시록에서

(5)

금과 흰옷과 안약

성경: 계 3:18, 벧전 1:7, 벧후 1:4, 계 19:8, 요일 2:27

I. “나는 너에게 권면한다. 불에 제련한 금을 나에게서 사서 풍성하게 되도록 하고”—계 3:18.

- A. 여기서 금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요소에 참여하게 하는 우리의 증가하는 믿음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벧후 1:4, 눅 17:5, 18:8 하.
- B. 성경에서, 작용하며 일하는 우리의 믿음은 금에 비유되고,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 곧 그리스도의 신성은 금으로 예표된다—갈 5:6, 벧전 1:7, 출 25:11.
 - 1. 우리는 믿음으로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요소에 참여하게 하는 살아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벧후 1:1, 4.
 - 2. 우리는 금인 믿음을 얻기 위해 불같은 시험을 통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참된 금, 곧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 요소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럴 때에 우리는 금으로 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순수한 금등잔대가 될 수 있다—계 1:20; 21:18.
 - 3. 예표론에서, 금은 신성한 본성을 상징하며 또한 우리가 그 신성한 본성을 귀히 여기고 자신의 것으로 취하게 하는 살아 있는 믿음도 상징한다.
 - a. 신성한 본성은 오직 우리의 살아 있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체험과 누림이 될 수 있다—벧전 1:7.
 - b. 그리스도는 신성한 본성의 체현이시자 우리의 살아 있는 믿음이다—골 2:9, 롬 3:22, 26, 갈 2:16.
 - c.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가져야 한다—히 12:2.
 - 4. 우리는 살아 있는 믿음과 신성한 본성을 분리시킬 수 없다. 우리는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살아 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신성한 본성을 누린다는 것을 안다—갈 5:6, 벧후 1:4.
 - 5. 우리에게는 금—그리스도 자신인 살아 있는 믿음으로 취하고 적용하는 신성한 본성—이 필요하다—계 3:18.
 - a. 믿음은 우리 안에서 살고 행동하는 놀라운 인격이다. 이 살아 있는 믿음은 그리스도 자신이시며 우리가 사야 할 금이다.
 - b. 우리가 이 금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게서 금을 사기 위해 그리스도가 우리의 누림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18 절, 빌 3:7-8.

II. “나는 너에게 권면한다... 나에게서...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계 3:18.

- A. 우리는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16:15.
- B. 흰옷에 관해서 말하자면, 흰색은 순수함을 가리키며, 옷은 우리의 행함과 품행을 말한다. 그러므로 흰옷은 하나님의 순수함을 표현하는 행함과 품행을 상징한다—계 3:18.
- C. 18 절에서 흰옷은 주님께 인정 받을 수 있는 품행을 의미하는데, 이는 교회가 살아 낸 주님 자신이다—3:4, 19:8.
- D. 이 흰옷은 우리의 주관적인 의이신 그리스도, 우리 존재가 살아 낸 그리스도, 그 영으로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표현이다—마 22:11-12, 고후 3:8-9.
 - 1. 우리가 살아 낸 그리스도는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기 위한 우리의 두 번째 옷이 될 것이다.

2. 이 두 번째 옷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택함받기 위한 것이다—눅 15:22, 마 22:11-12, 시 45:13-14.
- E. 우리에게 살아 있는 믿음이 있고 신성한 본성에 참여할 때, 이 신성한 본성은 결국 우리에게서 나와 우리의 생활이 될 것이다—계 3:18:
1. 이 생활은 우리의 존재에서 살아 내어진 그리스도이며, 이는 두 번째 옷이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와 자격을 준다—마 5:20.
 2. 우리가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하나라면, 우리는 살아 있는 믿음을 갖게 되어 그 풍성하고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이는 우리의 별거 벗음을 덮기 위한 두 번째 옷인 우리의 존재에서 살아 내어진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빌 3:9.
 3. 우리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여 이 두 번째 옷, 곧 우리의 존재에서 살아 내어진 그리스도를 사야 한다. 이는 주관적인 그리스도, 곧 우리가 주관적인 방식으로 체험한 그리스도이다—골 1:27, 3:4, 엡 3:17 상.

III. “나는 너에게 권면한다... 나에게서... 안약을 사서 너의 눈에 발라서 보도록 하여라”—계 3:18.

- A. 안약은 눈에 바르기 위한 것이다. 눈에 병이 나서 볼 수 없을 때, 눈을 치료하고 다시 밝게 만들려면 안약을 살 필요가 있다.
- B. 우리의 눈에 바르기 위해 필요한 안약은 기름 바르시는 영을 가리키는데, 그분은 또한 생명 주시는 영이신 주님 자신이다—요일 2:27, 고전 15:45 하, 고후 3:17.
- C. 영적인 통찰력은 항상 그 영과 관계있다—요일 5:6.
 1. 속에서부터 어떤 것들을 보는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눈과 내적 존재 깊은 곳을 바르는 그 영이 더 필요하다—계 3:18, 요일 2:27.
 2. 안약, 곧 바르는 관유가 있을 때 우리는 예지와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되어 신성하고 영적인 것들을 철저히 보게 될 수도 있다—고전 2:10-12.
 3. 우리의 눈에 발라져 그리스도께서 보배이심을 보고 그분께 매혹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안약, 곧 바르는 관유가 필요하다—행 22:14, 빌 3:7-10.
- D.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사역의 의도는 주님의 백성들을 도와 빛비춤 받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가치와 진가와 보배이심을 보게하고, 이러한 통찰력을 갖음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어떤 대가도 기꺼이 지불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엡 3:8-9.
 1.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는데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보물이신가를 못 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보배이심, 뛰어난 진가, 가치를 보지 못한다—히 1:1-3, 2:9, 8:1-2, 12:1-2.
 2. 일단 우리의 눈이 신성하고 영적인 안약으로 발라지면,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빌 3:7-8:
 - a.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온 일생을 대가로 지불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다—마 26:6-13.
 - b. 우리 자신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생명은 모두 가치가 없다. 사실상 우리는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 것이다—골 1:18, 27, 3:4, 10-11.
 3. 금과 흰옷과 안약은 모두 그리스도이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그분을 얻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계 3:18.